

# 양자컴 안정성 잇단 물음표... 관련 기업 주가 '널뛰기'

정보통신(ICT) 업계를 선도하던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시장의 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아이온큐는 26일(현지 시간) 주당 29.93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나 장외 거래에서는 오전 10시(한국시간) 기준 26.84달러까지 떨어져 10.32% 하락했다. 주요 원인은 아이온큐의 4분기 실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양자컴퓨터 기업으로 양자컴퓨터 전망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온큐 주가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양자컴퓨터 구현에 20~30년이 걸린다고 발언한 이후 급락했다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칩 공개로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주요 기업들이 양자컴퓨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양자컴퓨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양자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를 유지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마요라나 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나 현장 투입이 발생할

아이온큐 실적 부진 겹쳐... 장외 거래에서 10.32% 급락  
젠슨 황 "양자컴 구현 30년 걸린다" 발언 후 하락·반전 요동  
엔비디아 주가 오르락내리락... 비트코인 4000만 원 '뚝'



2023년 6월27일 '퀀텀 코리아' 행사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려 양자과학기술 석학들이 기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정성 미국 듀크대 교수 겸 아이온큐 CTO·존 마르티니스 미국 UC샌타바버라 대학 교수·찰스 베넷 IBM연구소 연구위원·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 교수. 연합뉴스

지는 미지수다.

전 세계를 강타한 AI 열풍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딥시크 공개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빅테크 AI 사업의 수익성이 의심 받는 상태에서 26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렸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393억3000만 달러의 매출과 0.89달러의 주당순이익을 기

록했다.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선 수치지만 최근 7개 분기 중 최저 성장률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이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과 반전이 이어지며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때 1억6000만 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 역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비트코인 시세는 25일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으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급락했으며 27일 기준 빗썬 기준 최저치 1억2055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목받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메타버스 열풍과 생성형 AI 등장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과대평가론과 함께 관심이 줄어들며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T 기업들의 핫 트렌드로 꼽히는 AI와 양자컴퓨터 등도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으며 IT 기업들이 이전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해당 산업들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 전 세계 AI 시장은 2024년 234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345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자컴퓨터 역시 2024년 11억 달러에서 2030년 42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역시 미국 정부의 가상 화폐 진화 정책에 따른 상승이 기대된다.

여기에 3월3일 모바일 박람회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2025가 예정된 만큼 IT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공개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고객 해외여행 수수료 2000억 절약

1000억 돌파 9개월 만에 달성  
해외 체크카드 45.4%가 '하나'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서비스 이용 고객이 아낀 해외여행 수수료가 2000억 원을 넘었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하나카드는 2022년 7월18일 트래블로그 출시 이후 지난 17일까지 고객이 아낀 수수료가 △무료환전(환율 우대 100%)으로 아낀 환전 수수료 1151억 원 △해외 이용수수료 면제로 아낀 금액 572억 원 △해외 ATM인출수수료 면제로 아낀 312억 원 등 2035억 원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일 평균 약 2억2000만 원 수준이다.

이용 고객이 늘자 아낀 돈의 증가 속도

도 가파르다. 서비스 출시 2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9개월 만에 2배인 2000억 원을 넘어섰다.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은 높아졌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업 7개 카드사의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에서 하나카드가 4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19.2%였던 것과 비교하면 26.2%p 상승한 수치다.

하나카드의 2022년 7월18일 트래블로그 출시 이후 지난 17일까지 고객은 "트래블로그는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해외여행 수수료 무료를 트래블로그 시장의 표준으로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트래블로그는 지난해 말 서비스 가입자 7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58종 통화 무료환전을 제공하고 있다.

허승아 기자heosa@skyedaily.com

##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총력 다짐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 더욱 교묘해져... 대응책 강화 필요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금융당국은 28일 서민·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불법사금융의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국민들이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단순 고금리 대출을 넘어 개인정보 갈취 후 협박, 값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 강요 등 점점 더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이 이러한 위험

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

우선 지자체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에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연합뉴스

원제도 종합 안내문을 비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 밀착형 간행물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의 위험

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자체 주요 도심 및 공공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허승아 기자heosa@skyedaily.com

## 신한銀,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수상

온·오프라인 판매 절차 평가  
은행권서 유일 A+ 등급 기록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26일 열린 2025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투자자보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펀드어워즈는 펀드평가사 KG제모인이 매년 은행과 증권 등 펀드 판매사를 평가해 시상한다. 투자자보호 최우수상은 한국금융소비자재단에서 펀드 판매 절차 관련 법규를 준수한 우수 금융회사에게 시상한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2024년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절차 평가를 실시했으며 해당 평가에서 신한은행이 종합 1위를 기록해 투자자보호 부문 최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26일 열린 '2025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박현주(오른쪽) 신한은행 소비자보호팀 부행장이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특히 △금융소비자 파악 △적합한 펀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A+ 등급을 기록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Inhancer**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 운동성 향상
- 관절통증 및 관절염 예방에 도움
- 관절액과 글라이칸의 합성에 도움

인-한서로 관절문제에서 해방!

MAYA  
수입원 : 마야무역 www.mayaco.co.kr